

#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의 문제

방석중\*

히브리어 마소라 성서에 나타난 고유명사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음역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이미 민영진의 국역성서연구(1984 출판)와, 박동현의 한글 개역판 구약 성경의 전통을 살린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미간행 2000.12, 23쪽 이하)이 있다. 필자는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표기)에 있어서 위 두 저자의 것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히브리어 반모음 쉬바 부정모음(不定母音)의 표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무음 쉬바와 유음 쉬바를 가진 음절의 한글 음역에 집중하여 생각하고자 한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의 발성 원칙을 찾아 그런 원칙에 준하는 한글 음역을 시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무음 쉬바와 유음 쉬바를 가진 자음들의 음역 표기를 가능하면 히브리어 발성원칙에 따라 제시하려고 한다.

## 1. 부정모음 또는 반모음 쉬바와 그의 음절 표기 문제

쉬바 ְ 부정모음을 가진 단어 어휘의 발음 표기가 문제가 된다. 쉬바(유음 e; 무음 ㅡ)가 모음은 생략되고 자음만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자주 나온다(예 מַלְכַי malkay; בִּנְפֹלִים bīnpōlīm). 괄호의 예문은 우리말로 ‘말카이’(‘말르카이’가 아님), ‘빈폴’(‘비느폴’이 아님)로 발음된다. 이런 경우 라메드(ל) 아래 쉬바(ְ)는 ‘으’의 모음 소리가 생략되고, 라메드 ‘엘’만 받침으로 쓰인다(예 מַלְכַי : 말). 여기서 ל(라메드 l)와 נ(눈 n)은 공통적으로 울림소리들이다. 시베르스<sup>1)</sup>에 의하면 ו / ל / ר / מ / נ 과 같은 자음들이 울림소리 발성체제를 이루고 있다.<sup>2)</sup> 따라서 첫째로 위의 6자음(ו / ל / ר / מ / נ) 아래 쉬바 부정모음은 생략모음이 되어 받침으로만 쓰인다는 결과가 나온다(예 בְּשַׁלְטֵן bēšaltēn 브찰엘)<sup>3)</sup> 그 다음 쉬바 부정모음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는 단어 중간 음절(예 בְּבוּכָרָא בְּרִי, 특히 쉬바 앞에 단모음이 있는 경우(다른 예 מְבַרְכֵּי에서 בְּ)이다. 셋째로 부정모음 쉬바 앞에 강점(다게쉬 포르테)를 가진 음절이 있으면 쉬바는 받침이 된다. (예 רֹמַמְתִּי rōmamti)<sup>4)</sup>

부정모음으로서 받침 사용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요약된다.

- ① 울림소리 자음 ו / ל / ר / מ / נ 아래 부정모음 쉬바는 생략모음(Vocalsyncope)이 되고 ְ 자음은 받침이 된다: 예) בְּשַׁלְטֵן, bēšaltēn 브찰엘, בְּ from בְּבוּכָרָא where ְ is a 받침이 된다.
- ② 단모음 다음 쉬바(ְ)는 구개음으로서 받침이 되고, 둘째 쉬바(ְ)는 ‘드’가 된다.

\*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1) E. Siverers, *Metrisches Studien* I,14.

2) GK §10c,d를 참조

3) 예: בְּשַׁלְטֵן 발아단 balāḏlān, בְּשֵׁנָא브 신아브 šināb, בְּשַׁלְטֵן 하남엘 h'nam'el, בְּרִי קַרְכִּישׁ קַרְכִּישׁ kark'miš. ְ는 ְ와 구별이 되기 때문에 ‘르’가 된 것이다.

4) 방석중, 『히브리어 문법』, 41쪽을 참조.

예) מַקְנָדְבַּי, maknadbay 막나드바이, קָנָּ에서 ָ는 ‘드’가 된다.

③ 부정모음 쉬바가 연이어 나올 경우 첫째 쉬바는 무음이 되어 받침이 되고, 둘째 쉬바는 유음이 되어 (예) 음절이 된다.

예) קַרְקַמִּישׁ, 칼(르)케미쉬 kark<sup>e</sup>mīš

④ לָ 경우 라메드 앞의 자음은 לָ를 중성 받침 ‘르’로 가지나, 그 다음 자음은 라메드 (לָ)는 ‘르’을 초성으로 가질 수 없다.

예) בַּלְאֲדַן 발아단 bal□<sup>a</sup>dān

### 쉬바의 유음 ‘에’ 혹은 ‘으’

한국의 어떤 성서학자는 쉬바의 유음과 무음을 구별하지 않고 발음상 “으”로 통일시키고 있다.<sup>5)</sup>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쉬바의 유음을 “에”로 발음할 필요가 있다.

쉬바는 성격상 반모음 또는 음절분할(모)음으로 불리운다.<sup>6)</sup> 시베르스는 쉬바는 중얼거리는 모음이라 칭하고 있다. 쉬바는 때로는 무음이고 때로는 유음으로 발음된다. 단모음 뒤에서는 무음으로서 음절도 사라지지만, 장모음 뒤에서는 유음으로서 e(에)소리를 내며 음절을 갖는다. 국내 성서학자들 중에서 이런 e는 “으”로 통일시키고 있으나 문제점은 남아 있다. 무음도 “으”, 유음도 “으”라고 할 때, 음절분할(구분)음으로서 쉬바의 표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좌우간 문법상 반모음 쉬바는 ‘부정모음’(불명확하고 일정하지 않으며, 애매한 발성(음)을 가진 모음)으로 정의 된다. 이런 부정모음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원칙은 서구 성서 학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있다. 국내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이런 쉬바 발음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sup>7)</sup>

무음 부정모음이 “으” 발음의 경우: 편의상 “으”이다. 정확한 의미로는 유음 쉬바(유음 부정모음)에 (ֿ)발음이 된다. 단어의 초반절에 나오는 부정모음 쉬바는 “으”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으”는 대체로 치음(ק ת ט ט ת)<sup>8)</sup>과 치찰음(צ ס ש ש צ)<sup>9)</sup> 자음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구개음(ג כ ק ג כ)과 순음(ח פ - ב פ)은 받침으로 쓰인다.

- יָאֵל    익알 (구개음 ֿ)
- אִפְּרָ    입하르 (순음 ֿ)
- מַקְנָדְבַּי    막나드바이 (구개음 ֿ)
- מַדְמֵן    마드멘 (치음 ֿ)
- חֹפְנִי    호프니, 순음 ֿ로 인해서 ‘흙니’로 읽어야 하나, 울림 소리 ֿ앞에 쉬바가 오므로 그 음절은 “으” 발음을 내어서 ‘호프니’로도 발음할 수 있다.(아래 IV. 5를 보라)
- שֶׁסְבַּח    세스박 차르 (치찰음 ֿ)
- תִּכְוָה    티크와, 구개음 ֿ로 인해서 ‘티와’로 읽어야 하나, 울림 소리 ֿ앞에 쉬바가 오므로 그 음절은 “으” 발음을 내어서 ‘티크와’로 발음할 수 있다. (아래 IV.5를 보라.)

5) 민영진, 『국역성서 연구』, 1984; 박동현, 한글 개역판 구약성경의 전통을 살린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미간행, 2000.12, 23쪽

6) GK §10. p.53-57 참조, 특히 §10a를 보라

7) 방석중, 『히브리어 문법』, 40-41쪽을 보라

8) 민영진, 상계서, 348쪽 5번

9) 민영진, 상계서, 349쪽 7번

부정모음 쉬바 이외에 장모음 최장모음 뒤에 말미자음(울림 소리 자음은 제외)은 “으”의 발음을 낸다. 그런 말미자음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도 제기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최장모음 다음에 나오는 말미 자음은 ‘으’ 발음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장모음 뒤에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면 그 앞의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변모음되는 오해를 주기 때문이다. 예) 샷 4:4 לַפִּידוֹת lappidôt 랍피도트. ‘랍피도트’가 ‘랍피dot’이 되면, פִּי ‘피’ 장모음은 제대로 발음되지만, דֹּד ‘도’가 ‘dot’이 되면, 최장모음(י)이 받침 때문에 단모음의 인상을 준다.

예)<sup>11)</sup> קָרָקַר קָרָקַר 카르코르, גָּגַ גָּגַ 가그, אָסוּק אָסוּק 아수크, גָּדַ גָּדַ 가드, סוּף סוּף 수프

위에서 고찰한 부정모음 쉬바의 유음과 무음의 표기와 함께 우리는 히브리어 한글 음역을 8가지 원칙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8가지 목차는 아래 1-8가지이며, 개별적으로 히브리어 단어를 예를 들어서 원칙을 설명하겠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칙의 해당되는 내용과 함께 히브리어 단어 라틴어 음역, 한글 음역 순서로 음역을 표기한다.

1) 강점을 가진 자음 앞에서 부정모음 쉬바를 가진 자음은 받침이 될 수 있다.

예) לַפִּידוֹת lappidôt 랍피도트. 초두 음절의 종성 랍의 ב(표)이 되고 둘째 음절 초성 “피”가 된다.

בַּבְּבֻבָּה baqbbuqyâ 박부크야. 초두 음절의 받침(종성) “박”이 된다. 마지막 ק는 그 뒤의 울림 소리 ׀ 때문에 <크>가 된다.

2) 울림 소리 자음의 쉬바와 생략 모음

울림 소리 자음의 부정모음(indifinite vocal)은 생략모음이 되며, 앞자음의 받침(종성)을 이룬다. “—” 발음이 아니다.

예) בְּשַׁלְאֵל b<sup>ʿ</sup>sal'el 브찰엘: ל 라메드 + 부정모음 쉬바는 ׀의 받침 종성 르, 즉 찰이 된다. ל 라메드가 울림 소리 진동소리이기 때문이다.

בְּלֶאֱדָן bal<sup>ʿ</sup>dhān 발아단

בְּנַמְאֵל ḥ<sup>ʿ</sup>nam'el 하남엘

3) 울림 소리 앞에 쉬바가 오면 그의 음절은 “으” 발음을 낸다(י ו י ל ו ר מ ג).

예) אַבְרָם 아브람 ׀ 다음 ׀ (울림 소리)

גַּבְרִיאֵל 가브리엘 ׀ 다음 ׀ (울림 소리)

נְדַבְיָא 네다브야 ׀ 다음 ׀ (울림 소리)

עַדְנָא 아드나 ׀ 다음 ׀ (울림 소리)

מִזְמוֹר 미즈모르 ׀ 다음 ׀ (울림 소리)

מַרְאֵמ 마르레 ׀ 다음에 ׀ (울림 소리)

מִנְיָמִין 미냐야민 ׀ 다음에 ׀ (울림 소리)

עִבְרִי 이브리 ׀ 다음 ׀ (울림 소리)

תִּקְוָה 티크봐 ׀ 다음에 ׀ (울림 소리)

10) 박동현, 상계서.

11)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1984, 348쪽(1)을 보라

מקלות מיקלו트 ק 다음에 ל (울림 소리)

평소 첫음절의 단모음 다음에 쉬바는 종성받침이 되지만, 그런 쉬바 다음 셋째 음절 자음이 울림 소리 자음이면 초성 “으” 발음을 낸다.

4) (최)장모음 뒤 말미 자음은 “으”로 발음된다. 만일 말미 자음이 첫음절의 받침 종성이 되면, 불변음 최장 모음이 단모음의 인상을 줄 수 있다.

예) לוד 루드, לפידות 라피도트. 즉 루드 → 룻으로 변모음 되며 최장모음의 불변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5) ל ק מ ג 울림 소리 자음의 부정모음 쉬바 음절은 앞자음의 받침 종성이 된다.

울림 소리 자음(ל ק מ ג)이 말미에서 부정모음 쉬바를 가지면 “으” 대신 “떠 있는 소리”가 되어 그의 앞자음의 받침 종성이 된다. 이런 부정모음의 자음은 복합 명사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 예) הלל h<sup>h</sup>lām'el 하남 엘 → 남
- שבאב šin<sup>h</sup>ab 신아브 → 신
- חוק h<sup>h</sup>nôk 하노크
- בלדן bal<sup>h</sup>dān 발아단

6) 말미 자음의 쉬바는 “으”(울림 소리 자음 제외)가 된다.

- 예) ברुक b<sup>r</sup>rūk 베루크
- עניק onyēk 온예크
- קטבת katabt 카탑트
- הט het' 헤트

7) 부정모음 쉬바가 연이어 나오는 경우 첫째 쉬바는 무음(“으”)이고, 둘째 쉬바는 유음(“으”)음절이 된다. 국내 구약학자들 중에서는 유음 부정모음(쉬바)도 “으”로, 무음 부정모음 쉬바 “-”로 표기하는 이가 있다. 부정모음 쉬바가 단일하게 나올 때는 “으”가 괜찮겠지만, 둘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 “으,으”는 불분명하여 혼란을 줄 수 있다. 특히 울림 소리 자음이 연이어 나올 경우 부정 쉬바는 유음과 무음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좋다.

- 예) ירחמיאל y<sup>r</sup>rahm<sup>e</sup>el '예라흐메엘'에서 .... חם(흐메).....
- יפדהיא yiphdh<sup>e</sup>yâ 입데야
- קרקמיש kark<sup>e</sup>mîš 칼케미쉬, 카르케미쉬

8) 중간 음절 부정모음 쉬바의 받침 표기: 단어의 중간 음절에서 부정모음 앞에 단모음 음절이 있으면, 부정모음 쉬바는 앞음절의 받침 종성이 된다.

예) נבוכדנצר n<sup>b</sup>ûkadnešsar 느부갓네차르, 단모음 נ 다음 ג는 뒤에 장모음 נ<sup>h</sup>의 영향으로 위축되어 받침 ‘s’으로 쓰인다. נ<sup>h</sup>에서 נ는 최장모음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가 된다.

מקנדי maknadbay 막나드바이, 첫번 נ는 단모음 뒤 구개음 때문에 쉬바는 받침이 되고, 둘째 נ는 치음이기 때문에 “드”로 읽는 것이 좋다.

מִשְׁכָּנֶיךָ? 대상 4:3 잇바쉬. כִּכְרֵי 7는 그 뒤 כּ의 다게쉬 포르테의 영향으로 받침으로 쓰일 수 있으나, כִּכְרֵי '비드카르'는 그냥 두는 것이 낫다.  
 חֲזֵר-אֲדָרָה 7 강점은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첫 번은 자음의 받침, 나중은 7로 나눈다. אָדָרָה 7 맞다르

2.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박동현의 제안)에 따른 도표를 개괄적으로 조감하여 단평하자면 아래의 설명과 같다:

번호	히브리어	우리말 개역	박동현	방석종	단평
1	מְשִׁיבָאֵל יָגָל אֲחָאָב בְּרַכְיָאֵל בְּצַלְאֵל בְּלֹאֲדָן חֲנַמְיָאֵל שֻׁנְאָב אֲרָאֵלִי מִשְׁאָל	느 3:4 므세사벨 민 13:7 이갈 왕상 16:28 아합 욥 32:2.6 바라겔 출 31:2 브사렐 왕하 20:12 발라단 렘 32:7 하나멜 창 14:2 시납 창 46:16 아렐리 수 19:26 미살	므세자브엘 이그알 아호압 바라크엘 브찰르엘 발르아단 하나르엘 쉰압 아르엘리 미쉬알	므세잡엘 익알 아하브 바라크엘 브찰엘 발아단 하남엘 쉰아브 미식알	
2	יְבֹהָר טִבְחָה לִבְנָה שִׁבְמָה שִׁחוּר לִבְנָה מְשִׁיבָאֵל תְּבַעְרָה חֲשַׁבְיָה רִבְקָה	삼하 5:15 입할 대상 18:8 디브핫 민 33:20 립나 민 32:38 십마 수 19:26 시홀 립낫 느 3:4 므세사벨 민 11:3 다베라 스 8:19 하사바 창 22:23 리브가	이브하르  리브나 시브마 쉬호르리브낫 므세자브엘 타브에라 하사브야 립카	입하르 팁핫 립나,리브나 쉬호르립나트 므세잡엘 탐에라 하사브야/하사바 립카	단 평 은 아래 도 표 번 호 1-20 에 따 라 서 히 브 리 어 음역 을 개 별 적 으 로 설 명 하 였다.
3	יָגָל פְּגֻעֵי־אֵל הַגְּדֹלִים	민 13:7 이갈 민 1:13 바기엘 느 11:14 하그돌림	이그알 파그이엘 학그돌림	익알  학돌림	
4	מִכְנָדְבַי צִדְקָיָה עֹבַדְיָה מַדְמֵן גְּבוּרַתְנֹאֲצָר לֹד לוֹד חֲצֵר-אֲדָרָה	스 10:40 막나드베 왕상 22:11 시드기야 욥 1:1 오바다 렘 48:2 맛멘 왕하24:1.11느부갓네살 느 7:37 로드 창 10:22 룯 민 34:4 하살아달	마크나트바이 치트기야 오바드야 마드멘 느부카드넛차르 룯 하차르앗다르	막나트바이 치트기야 오바드야 느부갓네차르 로드 루드	

번호	히브리어	우리말 개역	박동현	방석중	단평
5	מַחֲרֵי פְּדֻחָאֵל יְהוּדֵי אַהֲרֹן נוֹגַח	삼하 23:28 마하래 민 34:28 브다헬 대상 2:47 야대 출 4:14 아론 대상 3:7 노가	마흐라이 프다호엘 야흐다이 아하론 노가호	프다헬 요호다이	
6	עֵשָׂו	창 25:25 에서	에사우	에사으(브)	
7	קֹזְבִי אַחַזְיָה בֹּעַז עֻזַּיָּה עִזָּה	민 25:15 코스비 왕하 1:2 아하시야 룻 2:1 보아스 왕하 15:30 웃시야 창 10:19 가사	코즈비 아하즈야 보아즈 웃지야 앗자		단 평 은 아래 도 표 번호 1-20에 따 라 서 히 브 리 어 음역 을 개 별 적 으 로 설 명 하 였 다.
8	יְרִיחוֹ חֲנוֹךְ תַּחֲפָנֶחֶס אַחֲרָה פְּקַחְיָה אַחַאֲב אַחֲיֹ אַחַמְטָא תַּחֲתֵימ חֲדָשִׁי אַלְיָחָבָא יְהוּדָה מַחֲלוֹן יְרַחְמֵאל תַּחֲפָנֶחֶס	수 2:1 여리고 창 4:17 에녹 렘 43:7 다바네스 대상 8:1 아하라 왕하 15:22 브가히야 왕상 16:28 아합 삼하 6:3.4 아효 스 6:2 악메다 삼하 24:6 닷딤 훗시 삼하 23:32 엘리아바 대상 5:1 야도 룻 1:2 말론 렘 36:26 여라브엘 렘 43:7 다바네스	여리호 하녹 타호판헤스 아흐라 프카호야 아흐압 아흐요 아흐므타 타흐팀 엘르야흐바 야흐도 마홀론 여라호므엘 타호판헤스	하노크 아호라호/악라호 아하브 아효 아호메타/악메타 탁팀 훗시/호드시 엘야흐바/엘야바	예 라 호 메 엘
9	אַלְיָחָבָא	삼하 23:32 엘리아바	엘르야흐바	엘야흐바/엘야바	
10	סֻכּוֹת	창 33:17 숙곳	숙곳	숫코트	

번호	히브리어	우리말 개역	박동현	방석중	단평
2	בָּלְאָדָן אֱלִיאִקִּים בָּלְעָם בְּצַלְאֵל כִּלְיוֹן פְּלָלְיָה	왕하 20:12 발라단 왕하 23:34 엘리야김 민 22:5 발람 출 31:2 브사렐 룻 1:2 기론 느 11:12 블라야	발르야단 엘르야킴 빌르암 브찰르엘 킬르온 플랄르야	발아단 엘야킴 빌암 브찰엘 킬르온/킬온 플랄야	
3	רֹמְמַדֵּי עֲנָר שִׁמְעוֹן חֲנַנְיָאֵל נְחֵמְיָה	대상 25:4.31 로맘디에셀 창 29:33 시므온 렘 32:7 하나멜 느 1:1 느헤미야	로맘디에셀 심온 하남엘 느헬야	시몬  느헤프야	단 평 은 아래 도 표 번호 1-20에 따라 서 히브 리 어 음역 을 개별 적 으 로 설 명 하 였다.
4	אֶלְנָתָן בְּנֵיָא חֲנַנְיָאֵל שָׁנְעָר שִׁבְנָה עֵינֵי רִמּוֹן	렘 26:22 엘라단 대상 8:37 비느아 렘 31:38 하나넬 사 11:11 시날 느 9:4 스바냐 느 11:29 에느림몬	엘나탄 빈아 하난엘 션아르 스반야 엔-림몬	빈아	
5	חֲסַנְיָא	느 3:3 하스나아	핫스나아		
6	תַּבְּעָרָה פְּנֵיָאֵל תִּדְעָל אֱלֵעֻזַּי עַמְעָד שִׁפְעִי אַשְׁעָן לַעֲדָה לַעֲדָן	민 11:3 신 9:22 다베라 민 1:13 바기엘 창 14:1.9 디달 대상 12:6 엘루새 수 19:2.6 아맛 대상 4:37 시비 수 15:52 예산 대상 4:21 라아다 대상 7:26 라단	타브에라 파그이엘 티드알 엘르우자이 아프앗 쉬프이 에쉬안 라으다 라으단	탐에라 팍이엘 티드알 엘우자이 암아드 쉽이  라다 라단	

번호	히브리어	우리말 개역	박동현	방석중	단평
17	חֹפְנִי יִפְדֵּי קַסְפֵּי שִׁפְעִי שִׁפְרָה לְפִדּוֹת	삼상 1:3 홉니 대상 8:25 이브드야 스 8:17 가시바 대상 4:37 시비 출 1:15 십브라 삿 4:4 랍비돏	호프니 입드야 카시프야 시프이 쉬프라 랍피돏	홉니, 호프니  쉽이  랍피돏트	단 평 은 아래 도 표 번호 1-20에 따 라 서 히 브 리 어 음역 을 개별 적 으 로 설 명 하 였다.
18	צָדוֹק אַצְבוֹן יִצְחָק אַמְצִיָּה שֶׁשֶׁבַע שְׁנָאָצַר	삼하 8:17 사독 대상 7:7 에스본 창 17:19 이삭 왕하 12:22 아마샤 스 1:8 세스바살 대상 3:18 세낫살	차독 에츠본 이츠학 아마츠야 세스밧차르 셴앗차르	차도크  이츠하크	
19	דִּקְלָה עֶקְרוֹן תִּיקְוָה בַּבְּקָה	창 10:27 디글라 수 15:11 에그론 왕하 22:14 디과 느 11:17 박부가	디클라 에크론 티크와 박부크야	틱와, 티크와	
20	חַרְחָס בְּרַקְמִישׁ תּוֹגַרְמָה קַרְקוֹר פִּרְאָם	왕하 22:14 할하스 사 10:9 갈그미스 창 10:3 도갈마 삿 8:10 갈골 수 10:3 비람	하르하스 칼르크 미쉬 토가르마 카르크르 피르암	카르케미쉬  피람	

도표 번호 1.

מִשִּׁיבָאֵל 는 3:4 므세사벨, 므세자브엘→므세잡엘.

꺄의 쉬바는 무음이며 무음절이 되고, 꺄의 단모음 파타흐 뒤에서 꺄는 받침으로 쓰여야 한다.

יְגָאֵל 민 13:7 익알. 단모음 다음 쉬바는 받침이 된다. ‘익알’이 ‘이갈’(개역)로 표기된 것은 ‘이그알’보다 발성원칙에 가깝다.

초반절 꺄는 편의상 “—”로 발음하지만 음절 표시는 없다.

אַחָאֵב 왕상 16:28 아하브, 장모음 카메츠(ֿ) 뒤 순음은 ‘브’로 발음된다. ‘아합’(개역), ‘아흐압’은 발성원칙에 맞지 않는다.

בְּרַקְאֵל 욥 32:26 바라엘

בְּצַלְאֵל 출 31:2 브찰르엘→브찰엘



- לּ 울림 소리는 생략모음이어야 한다(GK §10d).
- בּלְאָדָן 왕하 20:12 발르아단 → 발아단(발라단 개역)(I,5번을 참조)
- חַנְמָאֵל 렘 32:7 하나므엘→하남엘(하나멜, 개역) (I,5번을 참조)
- שָׁנֵאֵב 창 14:2 신압 → 신아브(시납, 개역), 위의 סָנְאָב과 동일하다.
- אַרְאֵלִי 창 46:16 아르엘리  
초반절 רּ는 울림 소리 이기에 생략모음이어야 한다. 그러나 לּ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로 발음을 한다.
- מִשְׁאֵל 수 19:26 미식알, 쉰 밑에 쉬바는 “쉬”보다 “식”로 표시하는 것이 원음에 가깝다.  
초반절 שּ는 “-” 소리를 내나 음절은 못된다.

도표 번호 2.

장단 모음 구별없이 표기하는 것도 무방하나 어미 말미 폐음 앞의 장모음(최장모음) 다음(뒤) 자음은 받침으로 쓰기가 어렵다. 여기서 “자음 -”를 붙인다. 장모음이 단모음 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יְבָרַךְ? 삼하 5:15 이브하르→입하르, 단모음 뒤 쉬바는 받침으로 쓰인다. ‘입하르’는 ‘입할’(개역)의 첫머리 음절과 일치한다. ‘이브하르’는 발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
- לְבָנָה 민 33:20 리브나, כּ 뒤 울림 소리 ךּ 때문에 쉬바는 받침보다 ‘으’(브)로 읽히는 것이 맞는다. יְבָרַךְ와 대조.
- טַבְחָת 톱חת,
- שִׁבְמָה 민32:38 ‘시브마’도 לְבָנָה와 동일하다.
- שִׁחֹר לְבָנָת 쉬호르 립나트
- מְשִׁיבָאֵל 므세잡엘
- תַּבְעֵרָה 민 11:3 탑에라, 단모음 뒤 쉬바는 받침이 된다. 다베라(개역)는 발성 원칙상 ‘타브에라’보다 더 낫다.
- חַשְׁבָּה 스 8:19, 하샤브야, כּ 뒤에 울림 소리 י(요드) 때문에 ‘으’(브) 소리가 난다.

도표 번호 4.

- מַכְנֹדְבִי 스 10:40 막나드바이,  
첫 번 כּ 쉬바는 구개음으로 받침이 되나, 뒤에 ךּ는 치음으로서 “으”가 된다. 막나드베(개역)가 ‘마크낫바이’ 보다 발성원칙에 가깝다.
- צִדְקָה 왕상 22:11 치드키야 (← 칫키야), רּ는 치음이기에 ‘으’로 발음한다.  
צִדְקָ + הָ? 칫드키/야
- עֹבְדָה 읍 1:1 쉬바 (רּ)가 중간에 있으므로 받침이 가능하다.  
오바다→오바드야(‘치드키야’와 비교),  
복합명사 עֹבַד + הָ?
- מַדְמֵן 렘 48:2 마드멘
- נְבוּכַדְנֶאצַּר 왕하 24:1.11 느부갓네차르  
단모음 = 다음 רּ는 뒤에 장모음 אּ의 영향으로 위축되어 받침 ‘스’으로 쓰인다. אּ에서 אּ는 최장모음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가 된다.



기된다.

**אֱלִיָּבָא** 삼하 23:32에서 ‘하나님이 감추시다 (숨으시다)의 의미를 가진 복합어이다. ‘엘야흐바/엘약바’로 발음한다.

ㄴ 아래 쉬바는 대개 무음으로 ㄴ 발음만 해도 무방하다. “으”가 없이 ㄴ 발음만 한다. 그리고 **חַי**에서 **ח**는 받침 ‘ㄱ’으로 표기된다. ‘엘리아바’(개역)와 ‘엘르야흐바’는 발성원칙에 맞지 않는다. ‘엘야흐바’또는 ‘엘약바’가 가능하다.

**יְרַחֲמֵאל** 두 개로 이어지는 쉬바 중 나중 것은 약간의 쉬바 e발음을 하며 둘째 단어와 경계를 지어준다.

렘 36:26 Jerachmeel 예라흐메엘 (←여라흐므엘)

**חַיֵּנוּךְ** 창 4:17 하노크, 최장모음 **י** 다음 쉬바를 가진 자음은 받침으로 쓰일 수 없다.<sup>14)</sup>

최장모음 홀렘 **י** 다음에 오는 구개음(**א כ ק ג כּ**)은 ‘크’가 된다. 받침이 아니다. 고로 에눅(개역)과 하눅은 발성원칙에 맞지 않는다.

**אַחֲרָח** 대상 8:1 아흐라흐. 여기서 마지막 단어 **ח**는 발음되어야 한다.

**אַחֲבָב** 아흐압 또는 아흐아브 보다는 아하브가 맞다. 후음 **ח**와 **א**이 겹쳐서 연음이 되어 한음절이 될 수 있다.

도표 번호 10.

**אֱלִיָּבָא** 삼하 23:32 ‘엘리아바’나 ‘엘르야흐바’ 보다는 ‘엘야흐바’(Eljachba)로 읽으라. 이 이름은 **אֵל**과 **בָּא** 두 단어의 합성물이다. 따라서 쉬바 ㄴ뒤에 울림 소리 **י**가 있어도 ㄴ는 「르」가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두 단어를 구별해서 읽는 것이 좋다. 9번의 **יְרַחֲמֵאל**은 독립된 한 단어 **יְרַחֲמֵ**이기 때문에 ‘여라흐므’, 즉 쉬바 **ח**뒤에 울림 소리 **ח**가 있어 ‘흐’로 읽을 수 있다.

도표 번호 11.

**סְכוּת** 창 33:17 슛코트, 위 4번의 **לָר**, 느 7:37 **לוֹר**와 8의 하노크를 보라

도표 번호 12.

무음 쉬바는 음절이 없다. 그러므로 “—”도 불가능하다. ㄴ는 단모음 뒤에서는 무음이 된다. “—”의 표시가 가능하나 ㄴ 울림 소리 아래 쉬바는 “—”도 불필요하다.

**בְּלֵאָדָן** 왕하 20:12 발르아단→ 발아단,  
이 명칭은 발+아단 두 명사의 합성어이다. 쉬바(ㄴ)는 ‘아단’과 경계를 두어 읽혀야 한다. ‘르’로 읽지 못한다. 차라리 발라단(개역)이 발성원칙에 가깝다. ‘발르야단’은 적합하지 않다.

**אֱלִיָּכִים** 왕하 23:34 엘르야킴→ 엘야킴

14) 민영진, 『국역 성서 연구』, 348쪽(1) 참조

- בִּלְעָם** 민 22:5 빌레암→빌암  
**בְּרִשְׁלָיִם** 출 31:2 브/찰/엘(3음절) ← 브사렐(개역) 브/찰/르/엘(4음절). 단 **רִשְׁלָיִם** 킬르온은 **ל** 뒤에 울림 소리 **י**가 있어 ‘르’가 가능하다. **רִשְׁלָיִם**도 이와 동일하다.

쉬바의 유성과 무성을 공통으로 “으”로 읽는 것을 제안한 것은 좋으나, 유성음은 음절이 계산되고, 무음은 음절이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 아래 쉬바는 대체로 무음이 되어 대개 음절로 계산되지 않는다. 단모음 다음 쉬바는 무음이요 동시에 음절로 계산되지 않는 무음절이 된다.

**אֵלְיָכִים** 엘+야킴 ‘eljakim

그러나 이것은 [엘르야킴]으로 읽으면 단모음 뒤에 쉬바는 유음 “으”가 되어 음절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것은 발성론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엘야킴’은 발성론적으로 3음절로 맞고, 복합명사 [엘]과 [야킴]의 합성도 분명해 진다.

- בְּרִשְׁלָיִם** ‘브찰엘’이 ‘브찰르엘’이 되면 쉬바의 발성원칙에 혼동을 가져오게 된다. 첫머리 브(**ב**)의 쉬바는 ‘으’로 읽어지면서 **י**의 음절을 가질 수 있지만 찰(**צ**)의 **ל**는 단모음 뒤의 무성 쉬바가 되며 음절을 가질 수 없다. 무음절이 된다. **ל**는 **צ**의 받침으로만 쓰인다.

도표 번호 13.

- שִׁמְעוֹן** 창 29:33 ‘시몬’. **וּמְנוֹ**의 **נ**은 무음 쉬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נ**와 홀렘 **י**를 직접 붙여서 발성이 가능하다. **נ**과 **ע**를 겹쳐서 한음절로 읽을 수 있다. 고로 ‘시므온’ 보다 ‘시몬’으로 관례대로 읽는 것이 좋다.  
**נְחֵמְיָה** 느 1:1 느헤므야, 쉬바 **נ** 다음 울림 소리 **י**가 오기 때문에 [으]로 읽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겹치는 울림소리의 음절 축소 현상과 연음법칙이 더 적합하다. **נ**는 **י**와 겹쳐져 <냐>가 된다.

도표 번호 14.

- בִּנְיָא** 대상 8:37 빈야  
 울림 소리 **י**은 생략 모음으로서 받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חַנַּנְיָאֵל** 렘 31:38 하나넬 → 하난엘. ‘난과 엘이 특징적인 명사로 합성되어 있던 두명사의 경계표시를 위해서 [נ]은 [으]가 되지 않고 쉬바의 생략모음이 될 수 있다.  
**שְׁבַנְיָה** 느 9:4 스바냐, 쉬바 **נ**다음 울림 소리 **י**때문에 ‘느’가 가능하나, 여기서는 그것이 겹치는 울림소리의 음절축소 현상으로 **נ**는 **י**와 겹쳐져 <냐>가 된다.

도표 번호 16.

- תַּבְּעָרָה** 민 11:3 탑에라, 단모음 뒤에 쉬바 **ו**는 받침이 된다.

- פּוֹנֵיֶאל    민 1:13    콕이엘, 단모음 뒤에 쉬바 ּ는 받침이 된다.
- תָּרָעַל    창 14:1.9    티드알, 단모음 뒤에 쉬바 ּ는 받침이 된다.
- עֲמָצָר    수 19:2.6    암아드, 단모음 뒤에 쉬바 ּ은 받침이 되고, 어미 ַ는 앞의 장모음 카메츠 때문에 ‘드’로 읽혀진다. 아맛(개역)이나 ‘아므앗’은 발성원칙에 벗어나 있다.
- לַעֲרָה    대상 4:21    라다, ַ 무음 쉬바는 앞의 파타흐에 융합되어 “라”로 발성된다. 단모음 파타흐 다음 쉬바는 “으”가 되지 않는다.

도표 번호 17.

- שָׁפַע    대상 4:37,    쉬이, 단모음 히렉 뒤에 쉬바는 받침이 된다. 고로 여기서는 ㅂ 받침을 쓴다.<sup>15)</sup> 시비(개역)는 ‘시프이’보다 연음발성원칙에 가깝다. 음역은 원음대로 ‘쉬이’로 하고 읽을 때에는 연음 법칙<sup>16)</sup>을 적용할 수 있다.

도표 번호 18.

- צָדֵק    삼하 8:17,    ‘차도크’ 최장모음 ִ 뒤에는 <으> 발음을 갖는다. 사독(개역)이나 ‘차독’은 발성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 פָּדָה    창 1:19,    ‘이즈하크’ 장모음 카메츠 뒤 ּ는 <으>음이 된다.

도표 번호 19.

- תָּוָה    왕하 22:14,    ‘틱와’ 또는 ‘티크와’ 단모음 히렉 뒤에 ּ는 <ㅈ>받침으로 쓰일 수 있으나, 울림소리 ִ(와우) 때문에 ּ가 <으>로 표기될 수도 있다.

도표 번호 20.

- כָּרְכַּמִּישׁ    사 10:9,    ‘카르케미쉬’ 첫 번 쉬바 ּ는 <ㅡ> 발음이 되지만, 둘째 쉬바 ּ는 <케> 발음이 된다.
- פִּרְאֵם    수 10:3,    ‘피람’ 단모음 히렉 뒤에 쉬바 ּ는 <으>로 읽을 수 있지만(‘피르암’), 그 뒤에 무음자음(Quiescert Letter) ִ와 겹쳐 ִ는 생략되고 대신 ּ가 ּ 발음을 내면서 <람>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의미에서 개역의 <비람>은 ‘무음/후음자음의 겹침과 음절축소’원칙에 따른 표기라 볼 수 있다.

### 3.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에 대한 평가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주안점이 제시될 수 있다.

1. 쉬바가 연이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 박동현은 연이어 나오는 쉬바를 “으, 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무음과 유음 {ㅡ, 에]로 표기하기를 제안한다. 무성 쉬바 자체가 ( ㅡ )인데 유음 쉬바를 ( ㅡ )로 한다면 무음 쉬바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예를 들면,

---

15) 박인환 편저, 『바른 우리말』, 197쪽 참조: 단모음 다음 어말 무성 파열음 k p t는 받침 ㄱ ㅂ ㅅ으로 적는다.

16) 민중서림편, 이희승 감수, 『국어대사전』, 2000. 1. 1612쪽.



3. 쉬바가 다게쉬포르테와 다게쉬레네 자음밑에 있으면 “으” 또 “에” 음이 된다.

쉬바가 단모음 다음에 있으면 “으”음 또는 생략모음이 된다. 여기서 복합명사의 경계는 정확히 나누어야한다. [박동현]에게는 이것이 간과되고 있다.

אֲשְׁפַנָּא 단 1:3 아쉬페나즈 Aschpenas

כַּרְכַּמִּישׁ 사 10:9 kark'mîs [카르케미쉬] (Karkemisch)

4. ו (반자음)는 Matres lectionis 자음이라 반모음이라 불러야 한다.

5. ו (반자음), ל (측음), ר (진동음) 그리고 ם ך (비음)의 다양한 음가를 필자는 울림 소리로 통괄해서 다루고 있다.

6. 필자는 쉬바 모음을 부정모음으로 개념화하여 쉬바의 기능을 정리하였고, 쉬바가 무음이 되어 음절을 갖지 못하고 앞의 자음에 받침 (종성)이 되는 경우 생략모음이 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무성 쉬바는 표시하지 않는다. 박동현 주장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一) 즉 유성으로 한다고 했으나, מְשִׁיבָאֵל 3:4 므세사벨 →므세자브엘(박동현의 표기)에서 ךּ은 자브가 아니라 “잡”이 되어야 한다. 박동현은 쉬바 발음 규칙에서 모순을 만들고 있다. 고로 “므세잡엘”로 고쳐야 한다.<sup>17)</sup> מְלֹאֲכֵי 왕하 20:12 발르아단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לּ에서 ל는 무음 쉬바이다. 고로 (발르)를 (발)로 해야 그의 주장과 일치한다. 필자는 여기서 쉬바 모음에 대해서 문법용어를 정확히 쓰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 4. 성경개역판의 히브리어 쉬바의 한글 음역 문제

##### 문제점

히브리어 모음들은 단모음(예: 파타흐 א), 장모음(예: 카메츠 א), 최장모음(예: 홀렘 א, 체레요드 א), 최단모음(예: 하테프 파타흐 א) 그리고 쉬바(예: א)등이 있다. 그의 음가와 길이가 한글음역에서는 차별없이 표기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음절이 자음과 모음 관계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성’은 발성원칙에 준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글 음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쉬바 반모음인데 이는 오래전부터 유음 쉬바(‘에’ 발음)를 <—>로 표기하자는 제안이다. 이미 개역성경에 유음 쉬바가 <—>로 표기되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관례가 전통이 되어 하나의 원칙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박동현<sup>18)</sup>은 쉬바의 유성쉬바를 <—>음으로 통일시키고, 무음 쉬바는 음절로 표기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 <—>로 적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유음 쉬바와 무음 쉬바를 구별없이 <—>로 표기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로 인해 유음 쉬바와 무음 쉬바의 혼동이 생기게 된다. 개역성경이 유음 쉬바를 <—>로 표기했다고 해도, 유음 쉬바에 대한 한글음역 표기가 때로는 <에>, <예>, <여>로 음역된 것이 있다. 유음 쉬바가 <—>로 표기되는 경우, 한글음역의 무음 쉬바도 5가지 경우 <—>로 표기되는 것과 어떻게 구별하여 볼 수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이다. 박동현은 유음 쉬바

17) 박동현은 상계서 부록 수정보완에서 발성원칙 설명 없이 ‘므세잡엘’로 고쳤다.

18) 박동현, 상계서, 23쪽 1, (2)와 (3)

의 <→>표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기음이 있는 6가지 자음 בגרכפת '베가드케파트'(B<sup>g</sup>hadh K<sup>c</sup>phath)를 '브갓크팻'<sup>19)</sup>으로 부르고 있다. 베가드케파트에서는 '베'와 '케'가 유음 쉬바 <에>로 읽히고 있으며 '드'와 '트'는 초성으로 표기되는 것에 반하여, '브갓크팻'에서는 '브'와 '크'가 유음 쉬바 <→>로 읽히고, '갓'과 '팻'은 ㄱ과 ㅌ가 받침으로 들어가 있는 점이 다르다.

이런 기음 6자음의 문법상 용어를 개역성경에서 따로 표기한 적은 없겠지만, 박동현은 후대의 문법용어조차 '쉬바에 대한 한글 음역'에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어떻든지 유음 쉬바와 무음 쉬바에 대한 한글음역 표기를 발성원칙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그럼 유음 쉬바 <→>와 무음 쉬바 <받침>, <→>의 표기를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보자.

먼저 유음 쉬바처럼 표기되는 무음 쉬바<→>에 대해서 그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1) 유음 쉬바 <→>와 무음 쉬바 <→>의 혼동

무음 쉬바 <→> 표기의 5가지 경우

- ① 장모음 뒤의 자음은 <→>이다. (예: אב א브)
- ② 쉬바 뒤에 울림소리가 있으면 그 쉬바는 <→>이다. (예: אַבְרָהָם 아브라함)
- ③ 말미자음 아래 쉬바는 <→>이다. (예: בְּרוּךְ 베루크)
- ④ 연이어 쉬바가 나오는 경우, 첫째 쉬바는 < >이나 둘째 쉬바는 유음절 <→>이다. (예: אַחֲמֵטָה 아흐메타 또는 악메타)
- ⑤ 강점을 가진 말미자음 아래 쉬바와 그 앞의 쉬바는 모두 무음절 <→>이다. (예: קַטָּבְט 카답트 또는 카타브트)

유음 쉬바가 <→>이라면, 위의 무음 쉬바 <→>의 표기는 한글음역상 동일하게 읽혀지며 유음과 무음의 혼동이 생긴다. 예를 들면, אַבְרָהָם에서 אַב는 무음 쉬바가 울림소리 앞에서 <→>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אַחֲמֵטָה에서 אַח는 '아흐트'(박동현 견해)는 첫째 무음 쉬바 <호>, 둘째 유음 쉬바 <트>는 구별없이 <→>로 표기된다. 따라서 유음과 무음의 혼동이 생긴다. 발성원칙대로 읽는다면 ,아흐메타>로 표기한다. 이와 일치하는 표기는 이미 개역성경에도 나와있다(악메다스 6:2를 보라)

### 2) 한글 음역의 유음 쉬바 표기들과 그 사례 <에>, <예>, <여>, <오>

한글 음역은 이미 י(요드)와 ש(쉰)아래 쉬바는 유음쉬바 <에>, 예, 여> 또는 무음 쉬바처럼 <→>로 유동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 ① 첫째 음절의 쉬바 <에>, בְּדָן 베단(삼상 12:11)
- ② י의 쉬바 <예>, יְרוּשָׁלַם 예루살렘(사 40:2); יְרֵמְיָה 예레미야(느 10:2) : 양단어에서 י의 유음 쉬바 <에>의 표기를 뚜렷하게 보게 된다.
- ③ י의 첫 음절 쉬바 <여>, יְרֵמוֹת 여레못(스 10:26); יְהוֹחָנָן 여호하난(스 10:28); יֵאֵל יְיָ 여이엘(스 10:43) : 3단어의 첫 음절 <여>는 י에 유음 쉬바 <에>가 결합된 것을 알

19) 박동현, 상계서, 38쪽



수 있다.

④ ש의 첫 음절 쉬바 <소>, מלמלל 솔로몬(왕상 9:10)

⑤ ו의 <—>표기, ווהוה 사 40:9 ‘유다’의 첫 음절 ו의 쉬바가 <—>가 되고 무음 ו는 생략되어 ו 슈레크와 결합한 형태 ו무음자음 아래 쉬바는 생략되고 그 뒤 슈레크 ו와 결합되어 <유>로 읽는 것 같다. 이런 경우 ו는 <—>표기에 부합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첫음절 쉬바 <에>, <예>, <여>는 한글 음역에서 유음 쉬바 <에>를 발성원칙에 따라서 음역한 것 같다. 이것은 유음 쉬바를 <—>로 표기하는 음역보다는 더 적합하다.

### 3) 유음 쉬바와 무음 쉬바의 한글 음역 표기 정리

히브리어 발음 형태가 유대식, 유럽식, 영미식으로 표기되지만, ‘종래의 영미식’은 유럽식의 경향과 일치한다<sup>20)</sup>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종래 한글 개역판 한글 음역의 쉬바의 음역 <—>은 한편으로는 전통을 살리되, 다른한편으로는 유럽식 경향과 함께 문법적 발성원칙을 살려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글개역 음역이 원래의 히브리어 원문에서 온것인지 중역(重譯)한 것인지가 확실치 않고 발성원칙에 따라 음역된 것인지 미심적기 때문이다. 언어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읽도록 하는 것이 성경번역의 목적이라면, 언어의 표기 또한 원어의 발성원칙에 따라 한글 음역하는 것은 마땅하다. 설령 유럽식 경향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성서 히브리어의 발성원칙을 중요시하여 음역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히브리언어학 준비가 되어있지 않던 시대에, 외국 성경의 표현을 빌려 한글로 음역한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제약은 서서히 벗겨져야 할 것이다. 성서언어의 의미를 선불리 건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언어의 표기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 개역의 음역과 다르다고 해도, 음역이 발성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앞의 히브리어 한글 음역 8가지 원칙, 한글 음역 시안에 관한 도표에서 설명한 유음 쉬바 <에>, 무음 쉬바 <—> <받침>의 사례들은 음역을 위한 발성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뒤에 히브리어 한글 표기 원칙 5가지는 종합적인 정리가 될 것이다.

## 5 히브리어 한글 표기 원칙 5가지

### 5.1. 무음절로서 발성표기 <—>와 생략모음 및 무음과 후음의 겹침과 음절 축소

1) 장모음 뒤에 오는 자음은 “—”로 적는다.

예) אב א브 (장모음 a뒤 ב)

אמר 하모르 (최장모음 i (î)뒤 מ)

2) 단모음 장모음 뒤에 올림 소리는 “으” 없이 받침 종성으로만 표기된다. 이런 경우는 아래와

같다.

20) 박동현, 상계서 22쪽, 각주 17)참조.

- 예) אַע 암 (단모음 a 뒤의 ׀)
- אֵל 엘 (장모음 뒤 ל)
- אַל 엘 (단모음 뒤 ל)
- אֵלֹהִים 엘로힘 (장모음 ׀(i) 뒤의 ׀)
- שֵׁם 심 (장모음 î 뒤의 ׀)
- קוֹל 콜 (장모음 i ô 뒤의 ל)
- כֹּל 콜 (장모음 ô 뒤의 ל)
- קוּם 쿼(장모음 ı 뒤의 ׀)
- אֵינָם 에남 (최장모음 ê 뒤의 ׀)
- תֵּימָן 테만 (장모음 ַ ā 뒤 ı)

3) 단일 명사나 합성 명사에서 울림 소리 밑에 쉬바는 즉 생략모음이 된다.

예) אֵינָם šin'áb 신아브, הַנְּמָלֵל ḥ'nam'el 하남 엘

4) 말미 자음의 쉬바는 생략 모음이 된다.

예) בְּרוּךְ b'rûk 베루크, אֹנְיֵק 'onyek 온예크

    כַּתָּבֹת kâtabt 카تاب트, הֵטֵט hēt' 헤트

5) 쉬바를 가진 무음과 후음 자음의 연음현상: 단모음 뒤의 쉬바를 가진 자음(종성)이 그 뒤의 음절의 초성이 되는 현상이다.

예) שִׁפְחֵי šiphî 쉬이→시비, אַחַבְּ אַחַבְּ 아흐아브→아하브, חַשְׁבֵּי 하샤브야→하샤바, חַיֵּי אַחַבְּ 아흐요→아효.

6) 겹치는 울림소리의 음절 축소와 연음 현상.

예) חַבְּבֵי חַבְּבֵי 스반야→스바냐

## 5.2. 쉬바 ַ가 종성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

단모음 뒤에 쉬바가 오는 경우, 특히 구개음(א ק כ)과 순음(ב פ פּ פּ) 밑에 쉬바는 받침 종성이 된다.

예) 1) מְדַלֵּל 단모음 히레 i 다음 쉬바 그리고 쉬바가 다게쉬 포르테 강점 앞에 있으면 발음 영향을 받아 무음 쉬바가 된다. 따라서 「으」 음절이 포기됨과 생략 모음 현상이 나타난다: “믹돌”.

2) נִבְחַז '넙하즈' 단모음 히레 i 다음 순음 아래 쉬바 (כּ)

3) בְּבִבְבִּי '박부크'. 단모음 파타흐 a 다음 구개음 아래쉬바(כּ)와 כּ 다게쉬 포르테 자음 앞에서 쉬바는 무음이 되어 「으」 음절이 포기된다. 생략 모음.

4) אֲבִשְׁלֹם '압살롬' 단모음 파타흐 뒤 쉬바는 무음 쉬바가 된다. 따라서 「으」 음절이 포기된다. 따라서 「압」으로 받침을 갖는다.

5) מְדַלֵּל '막디엘' אֲבִשְׁלֹם 과 같은 경우이다.

6) צָבְדִּי '잡디'. 위와 동일함

7) מְכַתֵּשׁ '막테쉬'. כּ 단모음 뒤에 쉬바는 받침으로 쓰이지만, 그 뒤에 있는 다게쉬 레네와 다게쉬 포르테의 음절의 영향으로 무음 쉬바가 되며, 따라서 생략모음 현상이 나타난다.

8) מְגַנָּה '망기나' גּ 울림 소리 쉬바는 단모음 파타흐 뒤에서 무음 쉬바가 되는 동시에, 그 뒤 다게쉬 레네 강점의 영향으로도 생략모음이 되고 「גּ」는 받침이 된다.

9) עֲבָדוֹן ‘압돈’. כּ (순음) 위와 동일함.

10) צִקְלָק ‘치클락’ ק는 단모음 히렉 뒤에서 무음 쉬바이나 그 뒤 울림 소리 ל 때문에 편의상 「클」 발음이 된다.

11) מִקְדָּשׁ ‘딕다쉬’ ק는 구개음이다. 9)와 동일하다.

12) מִקְטֵרֶת ‘딕테렛’. ק는 구개음이다.

13) כִּמְחָם ‘킴함’. מ는 울림 소리, 순음이다. 단모음 히렉 뒤의 쉬바는 무음이 되며 「으」 대신 생략모음이 되어 받침으로 쓰인다.

5.3. 쉬바는 울림 소리 앞에 쉬바가 오면 그의 음절은 “으” 발음을 낸다. י ו ל ג מ נ

- אֲבֵרָם 아브람 כּ 다음 ר (울림 소리)
- גַּבְרִיאֵל 가브리엘 כּ 다음 ר (울림 소리)
- נִדְבָרָה 네다브야 כּ 다음 ך (울림 소리)
- עֲדָנָה 아드나 ר 다음 ך (울림 소리)
- מִזְמוֹר 미즈모르 ך 다음 מ (울림 소리)
- מִמְרָא 마프레 מ 다음에 ר (울림 소리)
- מִנְיָמִין 미냐야민 ך 다음에 ך (울림 소리)
- עֲבָרִי 이브리 כּ 다음 ר (울림 소리)
- תִּקְוָה 티크봐 ק 다음에 ך (울림 소리)
- מִקְלוֹת 미클로트 ק 다음에 ל (울림 소리)

평소 첫음절의 단모음 다음에 쉬바는 중성 받침이 되지만, 그런 쉬바 다음 셋째 음절 자음이 울림 소리 자음이면 초성 “으” 발음을 낸다.

5.4. 쉬바가 다게쉬 포르테와 다게쉬 레네 자음 밑에 오면 유음절로서 “으” 또는 “e”(에) 음절이 된다.

- 예) מִפְּלֵצֶת 미펠레첻; פּ (프) 미플레첻
- שִׁפְרָה 시페라; פּ (프) 시프라
- חַמְרָה 함메라타; מ (므) 함프라타

5.5. 유동적인 발음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단모음 뒤 쉬바와 쉬바 뒤 울림 소리를 가진 לִבְנָה는 ‘립나트’와 ‘리브나트’ 두 가지 표기가 가능한 경우이다. ① ‘립나트’의 경우 단모음 히렉 다음 쉬바 כּ는 받침이 되며, 말미 장모음 ך 다음 치음 ת는 ‘으’가 된다. 따라서 ‘립나트’이다. ② ‘리브나트’의 경우 쉬바 כּ 다음 울림 소리 ך 때문에 쉬바는 ‘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리브나트’가 된다. 위의 ①은 일반 상용적인 표현이라면, ②의 것은 강조하거나 정확하게 들려 줄 필요가 있을 때 또박 또박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